

김 지사, “한파 피해 예방에 총력” 주문

14개 시군 단체장·17개 유관기관과 긴급회의서 취약계층 관리 및 다중 밀집장소 도민불편 최소화

김관영 도지사는 대설 및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전 실·국장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합동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21일 오전 7시까지 우리지역에 최고 34.6cm의 눈이 내렸으며, 서해안을 비롯해 정읍·순창지역 등 도내 일부 지역에는 22일 밤까지 평균 5~30cm, 많게는 40cm 이상의

강설이 예보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최저기온이 오늘 -15℃에서 -8℃, 내일은 -16℃에서 -10℃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파취약계층과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시군 단체장은 물론 35사단 등 17개 유관기관도 함께 한 합동회의다. 회의에서는 제설작업 실시현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제설제 중점살포 계획, 한파취약계층 관리,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품 비축 현황, 농업재해 대비 대처사항 및 관리방안 등 다양한 대설, 한파 대응 방안을 심도있는 논의가 벌어졌다.

김 지사는 23일까지 기록적인 한파가 예상됨으로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 등과 협조하여 한파취약계층에 대한 1대1 관리를 통해 건강·난방 등 상시 안부 확인하고, 야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체온증·동상 예방 방안을 강구하여 급변 한파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내일까지 많은 눈이 전방위에 따라 도민들에게 교통불편이 없도록 도로 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에 총력 대응해 달라”며 특히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다중 밀집시설에서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주문했다.

더불어 “농업용 비닐하우스, 축산, 양식장 예찰을 강화하고 눈치주기 등을 통해 사전에 재산피해를 예방하며 노후주택과 인공 구조물 등 취약시설의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대피해 소중한 생명 지키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 대설·한파가 2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지역에 대설 및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8시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전 실·국장 및 유관기관과 함께 대설 및 한파 대응 관계기관 긴급 합동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선제적이고 과도할 정도의 대응에 나서 달라”며 당부하고 있다.

전북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완주·무주·정읍 3개 시군 수상

완주 '우수상', 무주·정읍 '장려상'

전북도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완주군이 우수상을, 무주군과 정읍시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0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실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홍보, 지역 분위기 조성, 사업성과 등 총 6개 분야 20개 세부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3년 연속 수상한 완주군은 귀농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 완주에서 살아보기 챌린지 등 완주군민의 특색을 활용한 귀농귀촌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무주군은 귀농귀촌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예비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간담회 등을 추진했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으로 참가자 6가구 8명 중 2가구 3명이 전입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정읍시는 정읍만의 특색있는 귀농귀촌 지식 콘서트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 박람회, 언론보도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장려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맞이했다.

한편,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조성, 지역민과 융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전북 귀농귀촌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전북만의 특색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귀농귀촌인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규제혁신 성과 우수 지자체 선정

2년 연속 쾌거...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및 킬러규제 해소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성과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 애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2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실제 전북의 부안 품소만 해역은 대대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져 온 지역이었으나, 1964년 이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관련 중앙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 적극적인 규제 애로 해소 노력 결과, 지난 11월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60년 만에 전면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고, 1,200명의 어업인들의 자유로운 생계 영위와 연간 120억원 이상의 어업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년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집적화법 시행령으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불가 규제애로를 청취했고,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개최 등 규제개선 노력 끝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직접 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의 입찰·수주 애로가 해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및 비전문취업 비자(E-9) 연장 시 출국·재입국 절차 생략의 규제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승풍을 띄울 예정이다.

김희욱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생활·기업 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에 빨리 체감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전 시·군 확대에 걸맞게 파급력 있는 규제혁신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새로운 특별자치도 향한 전북도정 자신감 '쑥쑥'

전북도, 올해 농정·일자리 등 각종 평가 '1위'

전북도가 128년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시대적 대전환점을 앞두고 각종 평가에서 1위에 올라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경제, 복지, 농축산, 환경,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등극해 각종 트로피를 쓸어 담고 있다. 전북도가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농생명·축산 분야에서 특히 많은 성과를 거둬 대한민국 제1의 농도의 입지를 견고히 했다.

2023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농산물이력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전국 사료작물 품질 경연대회 최우수상, 과학영농기술지원 혁신상 최우수상 등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농산정책 평가 전국 1위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민이 잘사는 전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에서 사회경제적 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방점을 찍었다.

또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최우수상, 복지부 복지서비스 3개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 수상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으로 인정받았다.

청정전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끝에 산림분야

최우수 기관, 지자체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기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우수지자체 경진대회 대상 수상 등 환경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행안부 기금 성과분석 결과 1위, 민방위 업무 유공 최우수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지자체 합동평가 전국 1위 등 전북도 모두가 많은 바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다.

올해 전북도의 가득찬 트로피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 총 20억 여원을 추가 확보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북도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시군-지역주민간 도시재생 협업 네트워크 강화

전북도는 지난 20~21일 부안 모항해 나루가족호텔에서 도내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 120여명이 모여, 2023년 도시재생 성과공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도와 시군 등 도시재생 관계자들은 올해 전북도와 시군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북도내 올해 주요성과로 지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도시엔 활력을, 지역에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익산에서 전국 시군구 및 도시재생 기업들이 350개의 부스에 참여해 전국 5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2023 대한민국 도시혁신산업 박람회' 성과평

가를 익산시에서 발표했다. 이날 익산시 관계자의 도시혁신산업박람회 성과평가 발표와 시군별 우리지역 자랑과 한국도시재생학회 조성우 부회장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사례 등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간담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재훈 기자

출판기념회

스피치, 리더십 교육과정 48년 지도자로 생활해온 김양욱 교수의 출판기념회를 제자들이 준비했으니 스피치 제자, 지인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칠순기념 "행복한 스피치" 출판기념회
- 일시: 2023년 12월 23일(토) 오후2시 30분 축하공연, 오후3시30분 기념식
- 장소: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 주최: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본부
- 주관: 각 스피치과정 원우회 출판기념회 총괄본부위원회
- 참고
 - 문의사항: 063-231-6669, 285-6676
 - "행복한 스피치" 구입희망자는 보내드립니다. (가격: 16,000원)
 - 계좌번호: 전북은행(한국은행인협)502-13-0310743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